



즉시 배포용: 2022년 6월 8일

KATHY HOCHUL 주지사

버펄로 주민의 의회 증언에 대한 KATHY HOCHUL 주지사 성명서

"지난 이틀동안 전국은 총기 폭력 생존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버펄로 시의 제 이웃들을 비롯해 **Zeneta Everhart**, 총격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젊은이의 어머니, 총기 폭력 사건으로 어머니를 잃은 **Whitfield Jr.** 등 많은 사람이 증언했습니다. 생존자, 가족, 집행기관, 의료진이 함께 개인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워싱턴에 단일한 청원을 전달했습니다. 바로 지금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의회에 반자동화기 구매 연령 상향을 포함한 전국적인 총기 안전법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이곳 뉴욕에서 총기 폭력의 포화를 멈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하나의 주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 고향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지만, 연방 수준의 강력한 조치는 미래의 비극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순간에 버펄로, 그리고 미국은 바로 이것을 필요로 합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